

湖南倡義領袖

省齋奇參衍先生傳

附湖南倡義諸將列傳

序 文

서울大學校 教授 宋 相 現

끊임없이 흘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신先烈들의 태도는 우리나라가 지닌 위대한長點이요 또한 이로 인하여 五千年의 歷史는 連綿하게 자랑스러운 脈을 이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現代 物質文明의 最尖端을 가는 美國에서 한 市民이 祖上의 根源을 찾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찾아간다는 小說 『뿌리』(알렉스 헤일리작)의 경우나 구라과 傳統社會에서조차 첨단과학 기술문명의 壓倒속에 民族史的 正統性이나 自主性을 잊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찌 民族鬪爭史의 한 구석인들 소홀하게 다룰수 있을 것인가.

日帝의 收奪과 強占으로 얼룩진 우리의 最近世史에서 半島江山을 진동시킨 수많은 救國의 英雄중에 湖南倡義會盟所大將 省齋 奇參衍先生이 우뚝하시다.

先生은 멀리는 高峰 奇大升先生, 가까이는 蘆沙 奇正鎮先生 그리고 松沙 奇宇萬先生 등 巨儒와 憂國志士를 끊임없이 배출한 名門 幸州 奇氏의 자손으로서 學問이 깊으시고 人倫의 道理와 雄大한 抱負를 고루 갖추신 선비이시다.

省齋先生은 卓上空論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홀로 앓아 悲憤慷慨만 하던 書生이 아니라 一八九五年 閔妃弒害事件이 일어난 다음 해에 저 유명한 論告列邑文이라는 名檄文을 배포하면서 抗日義兵

을 일으킨 신義士이다.

奇大將의 義兵壯舉는 단 한번에 그친 憂國衷情의 發露가 아니고 왜놈의 손에 원통하게 그 고귀한 生을 마감하실 때 까지 家門에서 이어받아 품어왔던 民族獨立思想과 철저한 나라 사랑을 계속적으로 실천에 옮기신 師表이었다.

性理學을 연구하여 人倫의 根本을 삼고 國權回復의 大義를 펴기 위하여 몸소 전국을 누비면서 國民의 收奪現場을 확인하며 彈藥을 비축하는 한편 당시 깨뜨리기 어려운 班常의 장벽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大乘的 基盤을 가진 義兵을 조직하는 탁월한 經世와 智略은 先生이외에 과연 어느 義兵大將이 또 갖추수가 있었을까.

受難을 거듭하는 나라를 위하여 팔을 걷고 분연히 일어나면 山川草木도 떨었도다. 마음속 깊이 맺힌 抗日 鬪魂이 아니었다면 어찌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끈을 수 있었으랴.

외람되게 私緣을 말하자면 奇參衍先生은 筆者의 祖父(古下 宋鎮禹)의 큰 스승이시었다. 古下라는 雅號를 지어 주셨고 古下가 七歲時부터 七年間 한 집에서 寢食을 같이 하면서 性理學을 가르치는 한편 용암과 같이 분출하는 愛國情熱과 雄渾한 經倫을 심어준 平生의 恩師가 바로 奇義士이었으니 古下가 後日 三·一獨立運動을 주동할 수 있었던 원천적 힘은 奇先生과의 思想的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筆者와 같은 小인이 省齋先生의 性理學者로서의 그릇과 國家保衛의 거룩한 뜻을 알리 없고 그분의 위대한 발자취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마는 이 어른이 암담한 旧韓末에 찬연하게 이룩하신 업적과 정신이 깊이 傳承되어 萬代의 敎訓이 될 것을 의심치 아니 한다.